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장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2013년 2월 25일)에서 국정 비전으로서 '희망의 새 시대'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으로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3대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문화가 국력의 핵심요소이고, 개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정책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②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며, ③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④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취임사 이후 그 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 문화정책 이념으로 제시된 '문화가 있는 삶',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화가 있는 삶,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어 경제성장 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다. 높은 자살률, 우울증, 중산층의 감소, 소득 양극화와 문화여가 격차, 학교 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1.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은 물질과 기능 중심에서 정신과 가치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문화와 문화적 삶이 국민행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문화예술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인간은 <그림 1>과 같이 비전과 꿈,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감성 욕구 충족, 의미 부여, 힐링, 초월, 카타르시스, 소속감 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의 특성이 행복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¹⁾

〈그림 1〉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용 가치



자료 :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152.

그렇지만 한편으로 논리와 가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를 대표하는 한 부분인 문화예술이 복지와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²⁾

1)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2) 정후익, 2013,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토론을 위한 준거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516.

〈표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

구 분	논리와 가치					
문화예술	정신가치	표출의 원리	수월성	집단주의	생존욕구	일반성
개인주의	정서적 욕구	창의, 독창성	복지	물질가치	수요의 원리	공유성

세부적으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를 통한 행복의 증진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정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있는 삶’이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³⁾할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가 있는 삶’은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총체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⁴⁾ 삶의 현장 자체가 문화의 창조, 소비, 활용이 일어나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문화융성

문화융성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내용 범위적 측면과 영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용 범위적 측면에서는 보편 좁은 의미에서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좁은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문화의 융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의 융성은 예술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역량과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문화의 융성은 창작의 가치와 향유의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 향유의 순환적 고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의 위상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문화를 통한 융성”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화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문화의 창조성, 다원성을 활용하여 경제, 외교, 교육, 복지분야에 접목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영역적인 측면에서는 ①문화 창조 및 보존, ②문화생활, ③문화 활용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⁶⁾

3) 문화 활동이 개인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 창의성,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형성, 자존감, 힐링, 공감과 소통 욕구 충족, 위락 생활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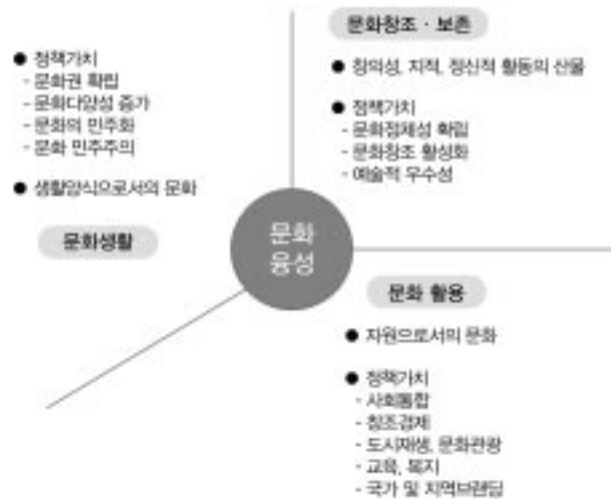
5) 이동연, 2013, 문화융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 pp15~16.

6) 영역적인 측면의 내용은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153~1154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 창조 및 보존'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창조산업의 발전 등 문화 자체의 융성에 관한 것이다.⁷⁾ 여기서 '문화'는 창의적, 정신적, 심미적, 지적활동의 산물을 의미한다. 문화 창조 및 보존의 축에서는 문화정체성의 확립, 문화 창조 활성화,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등이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둘째, '문화생활'은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적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문화생활에서의 문화정책 이념으로는 문화권과 인권 확립,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 접근성 증진, 문화복지 증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이념 또한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논의 되고 있다. 셋째, '문화 활용'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타 영역과의 융복합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⁸⁾ 문화예술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국가 및 지역브랜딩, 국제교류, 공동체 형성, 관광산업, 콘텐츠산업, 기업문화마케팅 및 상품브랜딩, 힐링산업,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하며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문화 활용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이념 논의 또한 문화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유네스코는 문화정책 논의 초기부터 '문화발전'을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추진하여 왔다. 문화발전 이념은 문화발전이 경제,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정신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 지원의 준거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영광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Glorification) 논의도 기업, 도시, 국가위상, 국가의 브랜딩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공리주의는 문화예술의 공공효과를 문화정책

〈그림 2〉 문화융성의 세 가지 영역



자료 :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156

7) 문화 창조 및 보존은 문화생태계 구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문화정책 초기부터 중요정책과제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이 문화정책 영역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문화산업, 창조산업, 생활문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8) 문화예술은 상징적 의미와 감성, 창의성, 문화 정체성, 스토리텔링, 지적자산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공공효과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응집력 강화,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발전 효과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외부효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재화(cultural goods)는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재(merits goods)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문화관광 또한 문화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정책 현황과 정책적 과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⁹⁾

중앙정부에서 문화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화정책 영역별로 총 14개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렇게 많은 부처들이 문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렇지만 현재의 문화정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문화정책 영역별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다. 둘째, 문화정책 관련 부처 간 혹은 부서 간 조정자의 역할이 미흡하다. 셋째, 기존사업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수행단위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저해하고 지역문화정책 집행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섯째, 문화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역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책적 과제

문화정책전문가들조차 문화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가 경제부흥과 동등하게 언급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지만,¹¹⁾ 이제 냉정하게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 다시 기초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¹²⁾

9)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2~1163의 논문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10)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문화산업과 문화사회화의 급속한 진전이 국내 부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1)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문화산업과 문화사회화의 급속한 진전이 국내 부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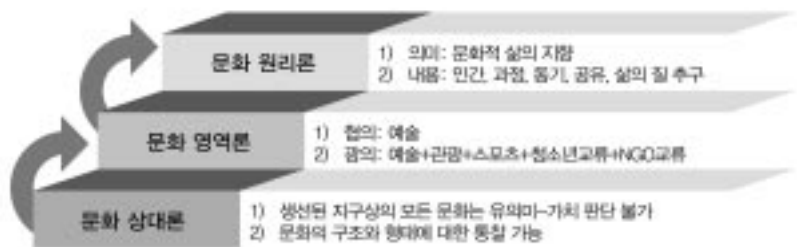
12)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13.

1. 문화가 있는 삶과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이념과 과제

〈표 2〉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현황

구 분	다문화	문화교류	관광	문화예술교육	도서관·출판	국어	디자인 공간·문화	일자리
고용노동부	■							■
교육부	■			■	■	■		
국방부		■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보건복지부	■			■	■			
법무부	■		■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행정부	■		■		■			
외교부		■						
여성가족부	■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그림 3〉 문화론의 세 가지 차원



자료 :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114

둘째, 현재 문화정책의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실천과제들이 모색되어야 한다¹³⁾. 문화정책의 쟁점사항들로는 ①현재의 문화정책 체계는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고 있는가? ②문화정책이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③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영역 간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 것인가? ④문화정책 협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이며, 이를 위한 문화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과 실천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3) 임학순·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64~1168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특집 문화융성의 시대, 충남의 미래는?

〈표 3〉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실천과제(예)

키워드	주요 정책 과제	해결과제
문화역능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역량 강화	▶ 규제 최소화, 육성지원정책 강화 ▶ 창조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예술가들의 사회진출의 확대	▶ 예술가 직업 다원화 쿼터제 ▶ 예술가의 정규직 직업기회 제공
	창의적 예술교육의 활성화	▶ 창조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R&D 강화 C-A-T R&D	▶ 새로운 혁신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 재원의 강화
	융합적 문화창작 콤플렉스 조성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문화창작 복합Complex로 조성
	C-A-T 특성과 창조인력 양성	▶ 국제적 인력양성을 위한 미래창조 스튜디오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제정	▶ 국회 입법 활동/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준수/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확대
	소수문화의 공존과 상생	▶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문화독점 해소와 비주류문화의 활성화	▶ 문화콘텐츠 독점 규제와 비주류문화 유통시장의 다양한 확대
	한류의 지속가능한 확산	▶ 대중문화 산업 지원 방안마련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 전통문화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지원
문화분권	비주류 문화권의 문화교류 확대	▶ 비주류 문화권역 전문가 양성 ▶ 비주류 문화권과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국회 입법 활동/지역분권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
	권역의 문화특성화 전략	▶ 서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역 별로 문화 장기발전 MP
	지역문화 자원과 문화관광 연계	▶ 지역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개발과 문화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연구
문화권리	지역 맞춤형 문화재정 확보	▶ 문화재정 2%에 걸맞는 지역문화재정 지원 및 운영
	문화기본법 제정	▶ 국회 입법활동,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근본 가치 제정
	표현의 자유 확대	▶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행복지수 향상	▶ 지역문화행복지수 개발 및 지도만들기
문화자립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 확대	▶ 공연관람, 축제참여, 미디어 활동의 접근 기회를 확대
	예술인복지법 전면 개정	▶ 국회 입법 활동/4대보험과 예술가 실업급여의 실현
	복합 문화커뮤니티 센터 걸림	▶ 전국 문화예술,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건립
	문화협동조합 활성화	▶ 문화예술계의 문화협동조합 운영 지원
	문화예술 치유 프로젝트	▶ 문화예술 치유 지원센터 및 스쿨 건립 및 운영

자료 : 이동연, 2013, '문화융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상', 이무웅, 2013,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서 지역문화 융성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참고문헌

- 양건열, 2013, '문화융성의 의미-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 중심으로', 『가치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학순 · 채경진, 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50~1178.
- 정정숙, 2013, 「문화예술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문화융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4.
- 정홍익, 2013,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토론을 위한 준거틀-」,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475~5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 확대와 국민행복」,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2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지역문화 격차해소와 역량강화」,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의 국제기여와 경쟁력 강화」, 현장이 원하는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 4차 자료집.